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5월 15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비상대비 향토안보 사이버보안 대학의 첫 학년도 성공 발표

기대를 증가하여 졸업생 7명이 이 종류 최초로 비상대비 향토안보 사이버보안에서 학사 학위를 받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첫 7명의 학생들이 올버니의 뉴욕주립대학교에 위치한 [비상대비 향토안보 사이버보안 대학](#)에 신설된 학사 학위로 졸업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부전공은 스케줄보다 앞서 2015년 5월에 출범하였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6개 부전공 과정에 275명 학생들이 등록해 등록 목표를 증가하였으며 이 대학교(의 63개 부전공) 중에서 비즈니스, 심리학, 사회학, 형사 정의, 커뮤니케이션 및 영어 다음으로 7번째의 가장 인기 있는 부전공이 되었습니다.

“비상대비 향토안보 사이버보안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 독특한 커리큘럼은 점점 더 새 정상이 되고 있는 극한 날씨와 테러리스트 위협 같은 비상에 우리가 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뉴욕주 공공 안전과 비상 대비의 미래를 대표하는 이 학생들을 자랑스럽게 축하합니다.”

뉴욕주와의 오랜 그리고 성장하는 파트너십으로 CEHC는 기존 자원을 규합하여 위험과 위협의 확대에 직면하여 뉴욕주와 그 이상의 늘어나는 니즈를 뒷받침 할 새 기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 향토안보 사이버보안에서 39가지 학점 학부 전공이 올버니 캠퍼스의 이 대학교와 SUNY 행정부 검토를 통과하였으며 주 교육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된 프로그램에는 광범위한 교양 과목 핵심 커리큘럼(윤리학, 비평적 탐구, 위험 관리 및 리더십 포함); 비상대비, 향토안보 및 사이버보안이라는 3대 주제 영역에서의 독특한 학제간 집중; 광범위한 응용 학습 요건(연구 세미나, 인턴십, 시니어 캡스톤 프로젝트 및 훈련)이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상대비, 향토안보 및 사이버보안의 5개 과정 CEHC 졸업 증서도 출범하였습니다. 제공 과목이 확대되어 캠퍼스의 다른 과의 새 과정들, 올버니 로스쿨 및 SUNY New Paltz의 재난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Cuomo 지사의 비전 덕분에 비상대비, 향토안보 및 사이버보안 부전공으로 졸업하는

UAlbany의 이 첫 클래스 학생들은 이 신흥 분야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University at Albany 학장 Robert J. Jones가 말했습니다.** “이 부전공에 대한 비상한 관심은 아러한 영역에서 UAlbany의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될 전문가에 대한 높은 수요를 증거합니다.”

“이 새 부전공에 대한 우리 학부 학생들의 반응은 놀라웠으며, 다루어지는 주제들이 오늘날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한 날씨, 사이버 보안, 이민, 인신매매, 테러 및 재난이라는 인식과 관련되었을 것입니다”라고 **CEHC의 임시 학장 David Rousseau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폭력적 극단주의의 근본 원인, 사이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정책과 에볼라 또는 지카의 확산을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이해하기 원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세계는 이들에게 다르게 생각하도록 도전하고 있으며, 우리 프로그램은 그들의 지식과 기능을 확대하여 그들이 이러한 중요 분야에서 책임 있고 효과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향토안보비상본부장 John P. Melvil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뉴욕주민들의 안전과 보안을 우선순위로 삼으려는 주지사 목표의 많은 성공 중 하나입니다. 저는 비상대비 향토안보 사이버보안 대학을 이 분야의 리더로 만들고 이 학생들이 향후에 뉴욕주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도록 준비시킨 **University of Albany**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향토안보비상본부와 제휴하여 **CEHC**는 뉴욕주 대비훈련센터에서의 학습 과정과 혼합된 그 첫 번째 3학점 겨울 세션을 개최하였는바, 학생들은 이론적 개념을 적용하여 자연 재난과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한 대응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CEHC** 교수진과 이 대학의 국립 안보대비센터가 **SPTC**뿐만 아니라 뉴욕주 및 **Oneida** 카운티의 비상관리실의 지원을 받아 설계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졸업생들:

- **Greg Bedik – Mountaindale, NY** – 전공은 인터랙티브 사용자 경험에 집중한 인포매틱스이고 이중 부전공은 스페인어와 비상대비, 향토안보 및 사이버보안입니다.
- **Anthony Cone – Clifton Park, NY** – 전공은 형사 정의이고 부전공은 비상대비, 향토안보 및 사이버보안입니다.
- **Daniel Giannettino – Chappaqua, NY**– 전공은 형사 정의이고 부전공은 비상대비, 향토안보 및 사이버보안입니다.
- **Tyler Grodin – Amawalk, NY** – 삼중 전공은 글로벌라이제이션, 경제학 및 스페인어이고 이중 부전공은 라틴아메리카학과 비상대비, 향토안보 및 사이버보안입니다.
- **Joeie Lum – New York, NY** – 전공은 사회학이고 이중 부전공은 형사 정의 및 비상대비, 향토안보, 사이버보안입니다.
- **Phillip Waknin – Queens, NY** – 이중 전공은 형사 정의 및 연극이고 부전공은 비상대비, 향토안보 및 사이버보안입니다.

- **Jhilene Walker – New Rochelle, NY** – 전공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고 부전공은 비상대비, 향토안보 및 사이버보안입니다.

금년 초에 Cuomo 지사는 University at Albany가 Harriman Campus의 남서 코너 12에이커를 재개발하여 새 신형 기술 창업 단지를 건설하여 CEHC뿐만 아니라 극도의 위험한 날씨 사태를 더 잘 대비 계획하기 위해 개발된 첨단 날씨 관측 시스템인 뉴욕주 메소넷의 본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1월의 새 현실을 위한 뉴욕주 재구상의 공개 시에 Cuomo 지사는 Joe Biden 부통령과 함께 주 및 국가 보안에서 리더로서 뉴욕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뉴욕주립대학교 제도 아래에 미국 최초의 비상대비 국토보안 사이버보안 대학의 창설을 [발표하였습니다](#). CEHC는 비상대비, 향토안보 및 사이버보안이라는 주제를 전문으로 하는 최초의 독립 대학으로서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위협에 맞설 준비를 시키는 고도의 종합적 학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